

# 외교안보라인 총출동... '세기의 담판' 이들 손에

### 센토사 합의 넘는 구체적 진일보한 성과 부담 의제 설정부터 합의문 초안 작성까지 신중 접근 美 폼페이오·비건-北 김형철·리용호 등이 핵심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회담 분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의 외교안보라인 수뇌부가 베트남 하노이로 총출동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완화라는 핵심 키워드를 놓고 북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뿐 아니라 두 정상을 보좌할 양측 대표단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정상은 27~28일 이틀간 진행될 핵담판을 통해 지난해 센토사 합의를 뛰어넘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진일보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본 회담에 앞서 양측 대표단의 두뇌게임이 긴장감 속에 펼쳐지는 이유다.

이번 2차 북미회담을 또 하나의 '세기의 담판'으로 장식하기 위해 지난 1차 회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보좌진 대부분 그대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특히 회담 직전까지 가용한 외교안보 채널을 풀기 위해 의제 설정부터 합의문 초안 작성까지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미국 측에선 트럼프 정부 들어 북한 관련 사안을 챙겨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회담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중앙정보국(CIA) 국장 시절부터 풍부한 대북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접촉해왔던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관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김형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의견을 나눴다. 북미 협상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회담장에도 동석하며, 마지막 합의문 작성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다룰 의제분야 실무협상을 맡아 북측과 교감해온 비건 특별대표도 핵심 수행원이 될 전망이다. 그는 김형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를 카운터파트너로 2차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해왔다.

이달 6~8일 평양을 방문해 담판을 벌인 데 이어 베트남 하노이로 자리를 옮겨서도 김형철 대표와 매일 같이 만나 2차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만드는 작업에 주력했다.

'슈퍼매파'로 불리는 북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1차에 이어 2차 때도 회담장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보좌관은 회담 사흘 전 한국을 방문해 한미일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사전조율을 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현안으로 인해 무산됐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행에 동행하며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조언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김형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뉴스

실무진 중에서는 엘리스 후커 백악관 NSC 한반도 보좌관과 알렉스 워링 국무부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등 국무부 한반도 라인에 총출동할 전망이다. 후커 부차관보와 워링 부차관보 등은 비건 특별대표와 함께 의제 조율과 최종 합의문 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북측도 수행단의 면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추진부터 성사 여부까지 조율해온 김형철 부위원장이 첫손에 꼽힌다.

대남 문제를 다루는 통일전선부의 수장인 통전부장을 겸하는 김 부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정

서도 그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의 각종 대외활동을 곁에서 꼼꼼히 살피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동행과, 핵심이제인 북한의 비핵화가 핵포기를 의미하는 만큼 군부를 대표해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수행원에 포함되는 것도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북미 협상의 실무를 담당할 미국통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의제 사전 조율에 나선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략실장 등도 수행원을 맡을 전망이다.

이미 하노이에서 만나 두 정상의 의전과 경호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대니얼 윌스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도 이번 2차 북미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뉴스

## '합의된 비핵화' 정의 나와야

의회전문매체 더힐 지적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의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에 대한 정의에 서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의 견해를 인용해 보도했다.

더힐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연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증이 소용돌이치듯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두 정상의 회담의 우선순위가 비핵화에 대해 합의된 정의에 도달하는 것임을 시사했다.

문제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Korean peninsula)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던 대목이다.

이는 좋게 보면 비핵화를 제대로 정의하는 데 실패한 것이고, 나쁘게 보면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북한의 정의를 미국이 묵인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더힐이 지적했다.

뉴스



## 백악관, 기념주화 공개 뒷면에 태극기 들어갈

미 백악관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주화를 공개했다고 CBS 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념주화 앞면의 가운데에 두번째 회담을 뜻하는 '2'라는 숫자와 '평화정상회담(PEACE SUMMIT)'이 새겨져 있고, 숫자 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양 옆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있다.

앞면 상단에는 '평화를 향한 새로운 길(New Avenue Towards Peace)'이, 그 아래에 한글로 '하노이 평화, 세 명의 지도자'란 문구가 표기돼 있다. 주화 뒷면 가운데에는 태극기, 왼쪽에 미국 성조기, 오른쪽에 북한 인공기가 있으며, 배경은 정상회담 개최지 하노이의 상징인 주석궁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기념주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태극기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기념주화의 가격은 100달러(약 11만2천500원)이며, 1천개만 한정 제작돼 백악관 기프트숍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된다.

뉴스

## 文, 막판까지 중재 시도... '4차 남북회담' 여건 마련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자신의 중재역할 능력을 발휘할 중요한 무대로 여겨진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의 비핵화 담판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회담 전까지는 하노이 선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일정부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 회담 당일 새벽까지 합의문 초안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 통화에서 자신의 역할론을 언급한 것도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형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사이의 실무협상 직전에 나온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비핵화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매력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다가 합의문 작성의 결정적인 순간에 중재자로서 자신의 '등판 기회'를 스스로 만든 것으로도 평가된다.

영변은 물론 그 외 지역에 대한 핵시설·물질의 신고, 사찰·검증까지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상응조치로서 북한에 제시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을 간파하고 협상의 지렛대로 남북경협을 제시한 것으로도

## 트럼프의 北 비핵화 상응 조치 쓸 수 있는 카드 늘려줄 수도

풀이된다.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 제재 완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지원 및 투자가 소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경협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조치를 해야 하는데,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문 대통령이 늘려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외에도 남북경협은 여러가지 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포스트 북미회담'

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노이 선언'에 전면적인 대북 제재 완화까지는 담기지 않더라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길이 열릴 정도라면 합의가 이뤄진다면 4차 남북 정상회담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벽에 가로막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 사전 조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남북 공동조사단의 현지 조사 때도 착공식 직전에 야기가스로 미국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곧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에 선순환적인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두 바퀴 평화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북미→남북→북미 등 정상급 대화를 이어가며 비핵화 동력을 계속해서 살려가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뉴스

## 부동산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UO work **중개없이 성과가 되는 권** 보증금 무 / 관리비 무

유요워크 금남점 최대규모 **24시간 운영!!**

### 소호사무실 입주사 모집

- 특장점
  - 보증금,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없음
  - 최고급 인테리어, 사무집기 무료제공
  - 무인 우편, 택배 보관 가능 • 0A기기, 회의실 이용 무료
  - 사업관련 제휴업체 연계(세무, 법률 등)
  - 카세어링 서비스 •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 사위장 • 주차장 • 산소발생기

UO work 금남점 Tel. 1800-5711  
광주 동구 금남로 193-22 (금남로4가역 4번출구 2분거리)

##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 캠핑카 주문 제작·판매

푸드트럭 제작 가능!

중고차 수입·화물 승용·합합 **최고가 매입!**

대한민국 최저가로 제작·판매 합니다!!  
광주 서구 매월로 63번길 11

(주)기가찬 H. 010-8647-3457 ☎ 062) 651-0075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업체는 전 직원이 경력자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립니다.

한국어든 **062)522-2424** **전남권 지역 061)375-8824**  
올바른 **062)522-2424**

※ 견적은 무료이며 여성장님이 직접 방문 ~ 절대 웃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업체 - 분심파손시 재점검제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함 / 관허 124호

## LG 익스프레스

이사 마무리시 스팀청소 서비스

- 선반·가구·싱크대·냉장고 청소
- 블라인드, 버티컬 탈부착 무료
- 2층~22층 사다리 보유
- 전국 체인점망 구축
- 에어컨 이설, 피아노 운반 전문

전국 어디든 문의 080-925-1234, ☎ 572-8900